

“3·1운동 정신, 평화통일의 추진력으로”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 독립운동 주무대 사할린서

오늘부터 4일간 3·1운동 100주년 평화통일 페스티벌

일제강점기 해외 독립운동의 주 무대인 러시아 사할린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지역회의는 “통일 역량 강화 일환으로 러시아 사할린 주 유즈노사할리니스크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통일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가 주최하고, 민

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는 18일 박종범 유럽부위원장 주최 만찬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사할린 평화통일 강연회’를 열어 급속히 변화하는 남북 관계와 평화 통일 환경에 발 맞춘 한인동포들과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19일과 20일에는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와 사할린 동포들의 슬픈 역사가 집약돼 있는 코르사코프 ‘망향의 언덕 위령탑’을 방문할 예정이다. 망향의 언덕 위령탑은 광복 이후 배를 기다리며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숨진 동포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세워졌다. 높이 10m의 위령탑은 직경 183cm, 두께 33mm의 파이프로 배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사할린의 주요 관광명소로 알려졌다.

또 ‘사할린 강제징용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 추모관에는 사할린에 끌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숨진 무연고 희생자 7000여 명의 이름

을 새긴 위패가 보관됐다.

박종범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 부의장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애국지사의 혼이 담긴 사할린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외동포들에게 통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할린은 역사적으로 아픔이 많은 땅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조선인들이 사할린에 끌려가 탄광 및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 당했다. 아직도 사할린 곳곳에는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현재 강제징용 한인 후손, 교포 등 4만여 명이 살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



서구 덕흥마을 정월대보름 당산제 정월대보름(19일)을 이틀 앞둔 17일 광주시 서구 유덕동 덕흥마을 주민들이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열고 있다. 덕흥마을 당산제는 20여년 전 마을 고령화 등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덕흥마을 당산제 추진위원회와 서구문화원이 복원해 매년 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북구, 담양 인접 생용동에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 운영

광주시 북구가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북구는 “지난 15일 가축 이동중지명령이 일부 해제돼 차량과 가축 이동 등 증가에 예상됨에 따라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가축 방역 거점소독시설’을 지속해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위기경보 하향 때까지 총 40명으로 구성된 가축전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 유지하며 방역활동, 방역기기 관리, 차량소독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부터 북구 생용동 광주-담양간 도로에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들어갔고 18일부터는 북구 지역 우체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소독시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원안위, 20일 영광군청서

원전 안전기준 강화 공청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영광·고창·대전지역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과거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원전 안전기준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지역 공청회, 설명회 온라인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모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공청회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발표, 폐널 토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원전 지진 안전성 강화 ▲원전 리스크 규제 강화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강화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등 11개 과제가 논의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난달 한빛원전 2호기 가동 중단은 운전원 실수 때문”

원안위 원인 조사... 16일 재가동

지난달 24일 영광 한빛원전 2호기(95만 kW급)가 정기점검을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간 지 2일 만에 돌연 멈춰선 것은(광주일보 2019년 1월 24일자 7면) 운전원 실수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한빛 2호기가 정지된 이유는 핵심설비 가운데 하나인 증기발생기의 수위(水位) 이상으로 원자로 보호신호가 작동됐기 때문”이라고 17일 밝혔다.

한빛 2호기에 딸린 3대의 증기발생기 중 1곳의 수위가 정상보다 높아져 모든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가 차단됐고, 나머지 1곳의 수위도 낮아지는 등 이상신호가 잇따르자 안전설비가 작동해 발전소가 멈춰 섰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원전 전문가들은 “증기발생기 내부 수위가 낮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제어되지 못한다면, 원자로에서 나온 뜨거운 냉각재가 흐르는 세관이 계속 달궈져 세관 균열·파손 등 사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원안위는 사건조사결과, 발전소 가동 중

단을 부른 증기발생기 수위의 비정상적 상승 원인에 대해선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수위를 수동으로 조절하면서 수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특성에 관한 운전원 교육, 관련 매뉴얼(절차서) 개정 등을 거쳐 지난 15일 한빛원전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한빛 2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한빛 2호기는 지난 16일 새벽 3시 발전 재개가 들어갔으며 18일 평시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6 해질 18:17 달 뜨기 16:38 달 지기 06:05

비 소식 낮부터 흐려져 밤에 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었다.

광주	흐리고 한때 비	-3/9	보성	흐리고 한때 비	-4/8
목포	흐리고 한때 비	-2/6	순천	흐리고 한때 비	-2/10
여수	흐리고 한때 비	1/8	영광	흐리고 한때 비	-4/6
완도	흐리고 한때 비	0/8	진도	흐리고 한때 비	-2/6
구례	흐리고 한때 비	-5/10	군산	흐림	-4/6
강진	흐리고 한때 비	-2/8	남원	흐림	-5/9
해남	흐리고 한때 비	-4/7	흑산도	흐리고 한때 비	3/4
장성	흐리고 한때 비	-5/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동~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동~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대서)	북~북동	1.0~1.5	동~남동	1.5~2.5

◇ 생활지수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높음
- 미세먼지

◇ 물때

	간조	만조
	06:09	00:31
목포	18:56	13:27
여수	01:50	08:29
	14:34	20:37

◇ 주간 날씨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	☀	☀	☀	☀	☀	☀
4/8	1/9	0/12	0/12	0/14	1/13	1/13

오늘 5mm 내외 비... 주말까지 포근한 기온

이번주 광주-전남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월요일인 18일 기압골 영향으로 평년(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 영상 7~9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보여 향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가 그친 이번주 광주-전남은 고기압 영향으로 평년(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 영상 7~9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8일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이며, 이날 저녁(오후 6시~밤 9시)부터 다음날인 19일 오후(오후 3시~오후 6시)까지 도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4~9도 분포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 기간 남해서부해상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관계자는 “광주-전남에 비가 내리면서 광주와 전남 11개 지역에 발표된 건조특보가 18일 오후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일부터는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기간으로 해안 저지대 지역은 만조 시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동물보호소, ‘케어’ 박소연 대표 명예훼손 고소

광주동물보호소는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박소연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동물보호소는 지난달 19일 박씨의 기자회견 내용 중 “지자체보호소에서 매일 대량 도살이 행해지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주보호소는 고소장에서 “박씨의 기자회견 이후 ‘광주동물보호소에서도 무분별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가장 힘든 점은 최선을 다해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직원들이 도살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고소배경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hb@

명품한옥호텔 | 남원에촌

자연을 벗삼아 느낌에 머물다

2018 전북 건축문화상 '공공부문 대상'
2018 한국일보 주최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
(호텔 서비스 분야)

남원에촌 남원시